

필리핀, 커피(Coffee) 시장 동향

2024년 10월, 하노이지사

○ 필리핀 커피(Coffee) 시장규모

- 유로모니터(Euromonitor)의 필리핀 커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, '23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9.4% 증가한 1,096.7백만불이며, '28년 1,705.2백만 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
- 필리핀 커피 시장은 분말 형태의 인스턴트커피(Instant Coffee)가 1,029.5백만 불로 전체 시장의 93.9%, 원두커피를 뜻하는 프레쉬커피(Fresh Coffee)가 67.2백만불로 6.1%를 차지하고 있음
- 필리핀 주요 일간지 필스타(PHILSTAR)에 따르면, '20년 1인당 커피 소비량 3.05kg에서 '25년까지 1인당 3.78kg의 커피를 마실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수치임

<필리핀 커피(Coffee) 시장규모>

(단위: 백만불, %)

구분	'20	'21	'22(A)	'23(B)	증감률 (B/A)	비중
☐ Coffee	1,006.1	964.2	1,002.9	1,096.7	9.4	100.0
○ Instant Coffee	953.0	907.2	939.4	1,029.5	9.6	93.9
○ Fresh Coffee	53.1	57.0	63.5	67.2	5.8	6.1

* 자료원: 유로모니터(Euromonitor) - Coffee in the Philippines

○ 필리핀 커피 생산 및 수출입 현황

- 필리핀 커피산업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를 시작으로 수 세기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, '22년 필리핀의 커피 재배 면적은 112,279ha, 생산량은 58,294.76톤으로 생산량 기준 세계 24위 국가임

- 필리핀은 커피 재배에 적합한 기후 및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커피 생산지역은 중앙 민다나오(31%), 다바오(21%), 방사모로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구(12%) 등 순임
- 필리핀 커피 생산량의 약 60% 이상을 로부스타(Robusta) 품종이 차지하고 아라비카(Arabica), 엑셀사(Excelsa), 리베리카(Liberica)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인스턴트 커피로 활용됨

<필리핀 커피 재배 면적 및 생산량>

(단위: ha, t)

구분	'20	'21(A)	'22(B)	증감률(B/A)
재배 면적(ha)	113,265	112,553	112,279	△0.2
생산량(ton)	60,640.95	60,607.18	58,284.76	△3.8

* 자료원: FAO STAT

- 인스턴트커피 수출실적은 HS Code 210112를 기준으로 조회 가능하며, 동 코드는 인스턴트커피, 밀크대용물함유조제품(라떼류), 커피조제품 기타가 포함됨
- '23년 필리핀의 인스턴트커피 수입실적은 전년대비 28.2% 감소한 234.1백만불이며, 한국은 인도네시아 198.0백만불, 태국 14.6백만불 등에 이어 2.5백만불로 5위를 기록했음
- 반면 '23년 필리핀은 인스턴트커피를 미국, 대만 등으로 수출하면서 전년 대비 37.5% 감소한 2.5백만불을 기록했음

<국가별 대베트남 인스턴트 커피류(HS 210112) 수출 현황>

(단위 : 천톤, 백만불)

구분	2021		2022(A)		2023(B)		증감률(B/A)		점유율(금액)
	중량	금액	중량	금액	중량	금액	중량	금액	
전체	140.7	434.4	104.6	326.0	72.0	234.1	-28.2	100.0	
인도네시아	134.8	406.3	96.3	286.1	64.0	198.0	-30.8	84.6	
태국	2.0	6.6	3.2	12.2	3.9	14.6	20.1	6.3	

말레이시아	2.1	12.6	2.9	17.2	2.0	11.9	-30.5	5.1
중국	0.7	4.3	0.7	4.4	0.6	2.8	-37.6	1.2
한국	0.4	1.8	0.5	2.4	0.5	2.5	5.7	1.1

* 자료원 : Global Trade Atlas / HS Code 210112(인스턴트커피, 밀크대용물 함유조제품 (라떼제품), 커피조제품기타)

○ 필리핀 인스턴트커피 유통 및 소비 동향

- 필리핀의 인스턴트커피 시장은 외국계 생산 브랜드 중심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음
- 기업별 시장 점유율은 인도네시아의 식음료 기업 마요라 인다(Mayora Indah Tbk PT)가 36.6%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, 네슬레 33.5%, 유니버설 로비나 21.8 등 순으로 나타났음
- 특히, 마요라 인다는 1977년 설립된 식음료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3-in-1 제품인 KOPIKO가 있으며, '19년 필리핀에 제조 및 가공 시설을 확장하면서 필리핀 커피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
- 스위스 기업 네슬레 또한 필리핀 라구나 및 바탕가스에 보유하고 있는 제조 공장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

<기업별 베트남 커피 시장 점유율(%)>

기업명	'21	'22(A)	'23(B)	증감률 (B/A)
Mayora Indah Tbk PT	35.0	35.5	36.6	3.1
Nestlé Philippines Inc	34.9	33.9	33.5	-1.2
Universal Robina Corp	22.5	22.2	21.8	-1.8
Gourmet Farms Inc	3.1	3.4	3.3	-2.9

* 자료원: 유로모니터(Euromonitor)

- 현지 소비자들은 맛이 부드럽고 달콤한 3 in 1 제품(커피+설탕+프림)을 선호하며,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이 고급화되면서 블랙커피, 생우유 커피, 유기농 커피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음

필리핀 생산 제품		
Mayora Indah(KOPIKO)	Nestle(Nescafe)	Universal Robina(Great Taste)
		
PHP 78/27.5g*10개입 (약 1,850원)	PHP 136/52g*10개입 (약 3,240원)	PHP 128/52g*10개입 (약 3,050원)
수입산 제품		
(태국) Khao Shong	(말레이시아) SUPER	(한국)동서식품
		
PHP 113/20g*25개입 (약 2,790원)	PHP 259/12g*25개입 (약 6,160원)	PHP160/11.8g*20개입 (약 3,800원)

* 자료원: 쇼피 등 온라인 쇼핑몰

○ 시사점

- 필리핀은 커피 소비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, 현지 중산층 소비자 증가 및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,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하나임
- 다만, 외국계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보유한 생산 시설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등 저가 제품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한국산 인스턴트 커피 제품의 필리핀 시장 공략이 쉽지 않은 실정임
- 한국산 인스턴트커피의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제품과 차별화될 수 있는 신제품 출시 또는 현지 평균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○ 출처

- Coffee in the Philippines. Euromonitor
- Filipino coffee drinkers to pump Southeast Asia's caffeine rush by 2025. Philstar

○ 문의처

- aT 하노이지사 +84 24-6282-2987 / 필리핀 수출모니터 작성